

인도, 젓소 오줌 음료 만든다

인도의 한 회사는 젓소 오줌으로 만들어진 소프트 드링크의 제품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디아 타임스 인터넷 판에 따르면 라시트리야 스와얌세박 상(RSS)의 젓소 보호 부서는 올해 말까지 '젓소 음료'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가우 질'이라고 알려진 음료수를 개발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 음료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음료 개발 부서의 책임자인 옴 프카카시는 새 음료가 '맛 좋은' 음료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RSS는 젓소 음료가 암과 간 질환 등과 같은 많은 질병들을 치료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美 '우유 옷 개발'

미국 언론에서 우유로 만든 옷이 공개돼 화제를 모은 가운데 이미 한국 기업들이 한발 앞서 우유 옷을 개발한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 섬유기업들은 우유뿐 아니라 옥수수 등 친환경 소재로 다양한 섬유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다.

11월 17일 미국 일간 뉴욕 데일리 뉴스는 '독일 패션디자이너 앙케 도마스케가 지난 15일 우유 단백질에서 추출한 카제인으로 만든 섬유 'Qmilch'를 개발해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뉴욕 데일리 뉴스에 따르면 앙케 도마스케는 2년간의 연구 끝에 우유를 단백질 가루로 만들어 끓인 후 압력을 가해 섬유로 만들었다. 내년부터 대량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우유로 만든 옷은 물빨래도 가능하며 실크처럼 부드럽고 화학섬유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외신은 전했다.



우유섬유로 만든 의상 패션디자이너 앙케 도마스케가 지난 11월 15일 공개한 우유로 만든 섬유(미국 일간 뉴욕 데일리 뉴스 캡처)

일본, 원유생산 감소로 버터 재고부족 비상

일본내 원유생산 부족으로 버터 생산이 줄어들면서 재고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11년 4월에서 9월까지 우유생산량은 357만2천톤으로 전년대비 4%가 감소하였으나 버터생산량은 19%가 감소한 2만9천톤으로 집계되었다. 이같은 생산량 감소는 직년 무더위로 소 수태가 늦어져 분만이 가을로 늦어지면서 우유생산이 줄었고 동북부 지진으로도 부현의 음용유가 부족하면서 가공유로 쓰던 북해도산 우유중 일부가 음용유로 전용되면서 버터생산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9월말 버터 재고는 전년대비 32%가 줄어든 2만346톤으로 현재 수준으로 생산소비 불균형시 연말에 1만천톤으로 까지 줄어 '07년도 버터 재고부족으로 대란을 일으켰던 수준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할인매장에서는 버터를 고객 1인당 1개씩 판매로 제한하고 있으며 언론의 버터 부족이라는 보도로 가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새로운 소 기생충 활용 백신 투여법 개발

영국 에딘버러 대학 연구진은 소 기생충을 이용하여 특정 질병에 면역을 갖게 하는 전혀 새로운 백신투여법을 개발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소에 기생하지만 해를 주지 않는 기생충을 이용하는 이 방법은 특정 질병 백신 균주에서 유효물질을 분리하여 기생충의 유전자에 부착하여 투여하는 방식으로 소의 혈관 내에서 증식하며 적정량의 면역물질을 장기간 소에게 방출하여 질병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백신법을 활용시 구제역이나 우결핵 등 장기간 예방이 필요한 질병에 대한 면역는 물론 치료약제 응용시 다양한 질병의 치료도 가능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연구 관계자들은 이번 백신 개발이 전 세계 소 관련 다양한 질병 치료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